

임실군, 신덕면 복지회관 새 단장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 회의

총사업비 40억원 투입... 리모델링·신규 공간 증축 통해 복지 기능 강화

임실군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4일 신덕면 복지회관 야외마당에서 준공식을 갖고,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준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등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회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신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통해 선정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병행 추진됐다.

신덕면 복지회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7억원 포함)을 투입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회관(상사바위관, 420.55㎡)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복지회관(거북바위관, 381.75㎡)을 증축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



임실군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야외마당(386.5㎡)과 주차장(352.7㎡)을 함께 조성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2024년 착공 이후 올해 11월 준공했다. 이와 함께 리더 교육, 주민 워크숍 등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군은 신덕면 복지회관을 신덕면의 복지·문화 활동의 중심이자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면민이 함께 어울리는 활력있는 생활거점 공간으

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동환 추진위원장은 "사업 기간 함께 애써 준 추진위원들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공간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새로이 준공된 신덕면 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동아리 활동의 보금자리가 되고, 활발한 공동체 활동으로 면민 모두의 일상에 생기가 넘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민의 배움, 함께의 빛展’ 개최

순창군, 군민사회교육 수강생 작품전시회 17일까지 옥천골미술관서

순창군이 군민들의 1년간 배움의 결실을 한자리에 담은 작품전시회 ‘군민의 배움, 함께의 빛展’을 오는 17일까지 옥천골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는 군민사회교육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고 군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민사회교육은 군민 누구나 여가선

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군은 생활양재, 광목자수 등 기술교육 2개 과목과 서예, 도자기공예 등 취미교육 9개 과목을 포함한 총 11개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예 △사군자 △생활양재 △도자기공예 △광목자수 △미술 등 6개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각 작품에는 군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창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과 공동체 정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사회교육을 통해 배움의 열정이 지역 곳곳에서 꽃피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우체국 소품물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 기간 연장

남원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9월~10월) 동안 추진했던 우체국 소품물 남원시 농특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에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올해 추석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정부기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일부 기간 소품물 운영이 되지 않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불편을 겪은바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농가 및 농특산물 가공 업체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할인쿠폰 재발행 및 특별기획전 운영을 통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명절 기간 농민 혜택을 다시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발전방안 논의

순창군이 민선 8기 막바지를 앞두고 2025년도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공약이행평가 회의'를 열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주철 단장을 비롯한 공약이행평가단 위원과 관련 부서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년간의 공약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약 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재 군은 5대 분야 79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3분기 기준 55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완료를 69.6%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 도내 지자체 중 상위권 수준으로, 군의 공약 추진이 안정적이고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에서 변경이 승인된 안건은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

△민속마을 일원 장독대 공원 조성 △고령사 복지주택 건립 등 3건이다.

군은 공약사업 일정 변경 및 사업성 재검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 일정을 조정했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는 지난해 무작위 추천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위원들이 참석해 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전년도 공약이행평가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해 군민 의견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양주철 공약이행평가단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순창군의 공약 이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종열)는 5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의 내실화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주요 시정 현안과 각 부서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으로, 남원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권한이다.

연찬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기법 및 착안사항 토론 △행정사무감사 자



료 분석 특강 △추가자료 요구서 작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감사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접수는 11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의회,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

임실군의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4일 제348회 임시회(폐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규)와 농업복지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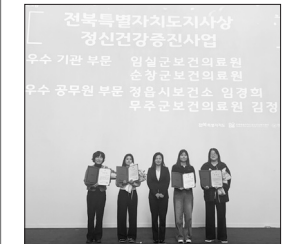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지난 제34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법령 용어에 맞춰 수



정·가결했다.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가적인 논의와 자료 보완이 요구되어 보류했다. 농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 ... 도지사 표창 수상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25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은 △정신건강 교원권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찾아가는 마음 건강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수상은 임실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여 마을의 건강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노암동 일대 노송로 간판 개선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노암동 일대 '노송로 간판 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노송로 간판 개선사업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우수한 간판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옥외광고 전문가 컨설팅 및 업소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 및 설치할 계획이다.

홍성봉 건축과장은 "노송로 거리 일대의 경관개선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사업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